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3.6

미 증시, 통화정책 보고서로 달러 약세, 금리 하락하자 상승 확대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등에 힘입어 상승

•미 증시는 애플(+3.51%)과 메타(+6.14%)가 호재성 재료로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하락폭을 확대한 점도 긍정적. 금리 하락은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50bp 이상의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발표를 한 데 이어 ISM 서비스업 지수의 물가지수 둔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하락, 덜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에 힘입은 결과. 이러한 내용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도 하락하자 호재가 유입된 시, 전기차 등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다우 +1.17%, 나스닥 +1.97%, S&P500 +1.61%, 러셀2000 +1.35%)

특징 종목: AI, 전기차 관련 업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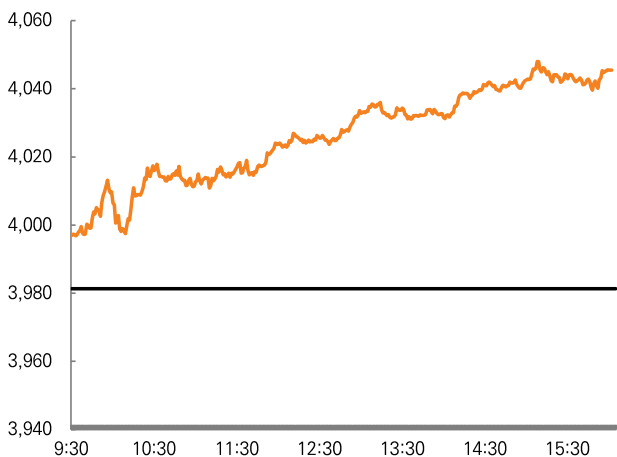
•애플(+3.51%)은 모건스탠리가 아이폰 수요 증가, 서비스 부문 성장 가속화, 신제품 출시, 총마진, 잠재적인 아이폰 구매 등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메타 플랫폼(+6.14%)은 바클레이즈가 AI 관련 주요 종목 중 하나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바클레이즈는 엔비디아(+2.47%), 깃랩(+4.56%), 스프라웃(+4.50%) 등도 관련 종목으로 발표. 테슬라(+3.61%)는 2월 중국 판매량이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32% 증가한 데 힘입어 상승

한국 증시 전망: 많은 호재 속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2.09%, MSCI 신흥 지수 ETF는 0.8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4.1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시사하는 등 최근 금리 급등 요인을 되돌리는 내용이 유입되며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AI 테마 및 전기차 등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8%, 러셀2000 지수가 1.35% 상승한 점도 우호적. 여기에 원화 강세에 따른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등을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언급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 등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32.07	+0.17	상해종합	3,328.39	+0.54
KOSDAQ	802.42	+1.93	홍콩항셱	20,567.54	+0.68
DOW	33,390.97	+1.17	베트남	1,024.77	-1.24
NASDAQ	11,689.01	+1.97	유로스톡스 50	4,294.80	+1.28
S&P 500	4,045.64	+1.61	영국	7,947.11	+0.04
캐나다	20,581.58	+1.20	독일	15,578.39	+1.64
일본	27,927.47	+1.56	프랑스	7,348.12	+0.8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국채 금리 하락, 달러 약세 영향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연준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근원 PCE 물가등은 연준의 목표인 2%를 훨씬 상회하지만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 상품 가격의 상승세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핵심 서비스 가격은 주거 중심으로 높았으나 작년 하반기 신규 임대료가 둔화돼 향후 관련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더불어 2%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세 이하의 성장과 노동시장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이나 임금 상승은 작년 하반기 이후 둔화. 경제 활동은 소비가 축적된 저축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나 제조업 생산량은 최근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 재정 상태는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상승했고 기업 채무 불이행 지표도 다소 높아졌다고 언급.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12월과 1월에 정책 긴축 속도를 늦추었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에는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발표. 이를 감안 3월 50bp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러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3월 이후에도 50bp 이상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보여줌. 이 보고서 발표 이후 국채 금리 하방 압력을 높임

미국 2월 ISM 서비스업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55.2를 소폭 하회한 55.1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54.5보다는 개선돼 견조한 흐름이 지속.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60.4에서 62.6으로 개선되었으나 생산지수가 60.4에서 56.3으로, 가격지수가 67.8에서 65.6으로 위축. 가격 지수의 경우 과거 9개월 연속 80.0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8개월 연속 70 미만으로 둔화되고 있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점차 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줌. 물론, 2월에 숙박 및 음식 서비스를 제외하고 부동산 등 16개 서비스 산업이 가격인상을 기록해 여전히 물가 부담은 지속.

지표 발표 후 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물가지수 안정으로 금리는 하락 전환 후 낙폭 확대. 이는 지난 1일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 세부 항목 중 가격지수가 44.5에서 51.3으로 크게 상향된 이후 급등하던 국채 금리의 흐름을 되돌렸다고 볼 수 있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한편,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전년대비 24.6%나 예상치인 17.7%보다 둔화된 15.0%로 둔화되었고, 전월 대비로는 1.1% 상승에서 2.8% 하락으로 발표된 점도 국채 금리 하락 요인. 이는 전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6%에서 8.5%로 둔화됐으나 예상치인 8.2%를 상회하자 국채 금리 급등을 견인한 점을 완화시켜 오늘 유럽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도 영향.

이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로건 델라스 연은 총재와 보우만 연준 이사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다만,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물가를 식히려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기존의 발언과 다르지 않았음. 보스톡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 여름 금리인상 기초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난 것 같다고 주장해 덜 매파적인 발언을 언급



AI, 전기차 관련주 강세

애플(+3.51%)은 모건스탠리가 아이폰 수요 증가, 서비스 부문 성장 가속화, 신제품 출시, 총마진, 잠재적인 아이폰 구매 등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스카이웍(+1.77%), 퀴보(+1.44%) 등 애플 부품주들도 동반 상승. 브로드컴(+5.70%)은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언스도 견고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 퍼스트솔리(+6.00%)는 UBS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주가를 14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급등.

메타 플랫폼(+6.14%)은 바클레이즈가 AI 관련 주요 종목 중 하나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바클레이즈는 엔비디아(+2.47%), 아리스타 네트워크(+3.00%), 깃랩(+4.56%), 스프라웃(+4.50%), 바이두(+2.15%), 아이언 마운틴(+3.49%) 등도 관련 종목으로 발표. 관련해 MS(+1.67%), 알파벳(+1.85%), 아마존(+3.01%) 등도 동반 상승했으며 C3 AI(+33.65%)도 급등

테슬라(+3.61%)는 네바다주가 3억 3천만 달러 세금 감면 승인했다는 소식과 2월 중국 판매량이 전월 대비 13%, 전년 대비 32% 증가한 데 힘입어 상승. 니오(+5.28%), 샤오펑(+3.11%) 등은 물론 리비안(+7.63%), 루시드(+4.81%) 등도 동반 상승. 포드(+4.22%)는 2월에 판매량이 22% 증가했다는 소식과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올해 생산을 늘릴 예정이며 그중 절반은 전기차라고 발표하자 급등.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자동차 판매는 8% 감소한 1,400만대를 약간 밑돌았으나 올해는 1,50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GM(+3.74%)도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39	대형 가치주 ETF (IVE)	+1.58
클린테크 ETF (CTEC)	+2.91	중형 가치주 ETF (IWS)	+1.34
소매업체 ETF (XLY)	+2.15	소형 가치주 ETF (IWN)	+1.25
온라인소매 ETF (EBIZ)	+1.54	대형 성장주 ETF (VUG)	+2.10
미국 인프라 ETF (PAVE)	+1.51	중형 성장주 ETF (IWP)	+1.58
핀테크 ETF (FINX)	+1.81	소형 성장주 ETF (IWO)	+1.5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31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79
클라우드 ETF (CLOU)	+2.07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0.60
사이버보안 ETF (BUG)	+1.34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0.6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3.11	미국 국채 ETF (IEF)	+0.80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65	하이일드 ETF (JNK)	+1.03
바이오섹터 ETF (IBB)	+1.68	신중국 채권 ETF (EMBD)	+1.03
로봇&AI ETF (BOTZ)	+3.13	물가연동채 ETF (TIP)	+1.08
반도체 ETF (SMH)	+1.36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1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441.83	+2.14	+2.93	-0.13
경기소비재	1,135.50	+2.12	+1.61	-3.37
커뮤니케이션	178.02	+2.10	+3.27	-6.32
유틸리티	334.84	+1.76	-0.69	-3.79
부동산	243.23	+1.74	+1.55	-4.90
금융	597.05	+1.60	+0.79	-1.74
소재	531.90	+1.40	+4.02	+2.30
에너지	664.30	+1.29	+2.94	+1.21
헬스케어	1,503.32	+1.16	+0.51	-2.20
산업재	874.52	+1.06	+3.25	+0.70
필수소비재	755.69	+0.08	-0.41	-1.4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전인대 개막시 이후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2.09%, MSCI 신흥 지수 ETF는 0.8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94.1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달러/원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현, 선물 순매도 여파로 장 중 한 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2차 전지, 제약 업종 등의 강세로 상승. 특히 KOSDAQ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급등하자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다만,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화 강세 등 연준의 통화정책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아 상승은 제한. 결국 KOSPI는 0.17% 상승에 그쳤으나 KOSDAQ은 1.93%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시사하는 등 최근 금리 급등 요인을 되돌리는 내용이 유입되며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바클레이즈가 메타를 비롯해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AI 관련 종목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하자 관련 종목군이 급등한 점은 한국 증시에서 AI 관련 테마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테슬라가 중국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포드도 미국 판매량 급증 소식에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기차 및 자동차 관련 종목군의 강세도 긍정적. 이는 한국 증시 관련 종목군의 강한 모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8%, 러셀2000 지수가 1.35% 상승한 점도 우호적. 여기에 달러/원 환율이 8원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등 원화 강세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점을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언급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 등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지수 견고

미국 2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55.2를 소폭 하회한 55.1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인 54.5보다는 개선돼 견조한 흐름이 지속.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60.4에서 62.6으로 개선되었으나 가격지수가 67.8에서 65.6으로, 생산지수가 60.4에서 56.3으로 위축



국채 금리, 3월 25bp 금리인상 기대로 급락

국제유가는 증산을 요구해오던 아랍에미리트가 OPEC을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 하락하기도 했으나, 과거에도 관련 발표가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 되돌림이 유입되었으며, 중국의 전년대 기대와 달러 약세 등으로 결국 상승 전환하며 마감. 미국 천연가스가 급등했는데 이는 미국 LNG 수출 급증과 난방 수요 증가 전망 등에 힘입은 결과로 추정

달러화는 연준 위원들의 덜 매파적인 발언과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25bp 인상으로 금리인상 폭을 축소할 점이 적절하다고 발표하자 3월 FO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유로화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2.8% 하락했음에도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4%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호주 달러, 브라질 헤알 등도 0.4% 내외 강세

국채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3월 25bp 금리인상을 시사하자 하락. 한편, ISM 서비스업지수가 예상을 상회하자 급격하게 되돌림이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세부 항목 중 가격지수가 둔화되었다는 소식으로 재차 하락세로 전환. 여기에 유로존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2.8% 하락 전환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여기에 보스틱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의 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 점도 장중 하락폭 확대 요인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전년대 기대 속 달러 약세에 기대 강세. 곡물은 옥수수가 기술적 반등으로 대두와 더불어 상승했으나 밀은 하락. 밀의 하락은 우크라이나 밀 수출 제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1% 하락한 반면, 철근은 0.02%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9.68	+1.94	+4.40	Dollar Index	104.521	-0.48	-0.66
브렌트유	85.83	+1.27	+3.63	EUR/USD	1.0635	+0.36	+0.82
천연가스	3.01	+8.82	+22.77	USD/JPY	135.87	-0.66	-0.45
금	1,854.60	+0.77	+2.06	GBP/USD	1.2036	+0.75	+0.77
은	21.24	+1.61	+1.44	USD/CHF	0.9362	-0.66	-0.45
알루미늄	2,405.00	+0.23	+2.98	AUD/USD	0.6770	+0.59	+0.65
전기동	8,983.50	+0.28	+3.06	USD/CAD	1.3598	+0.01	-0.10
아연	3,077.50	+0.97	+3.83	USD/RUB	75.6500	+0.25	-0.33
옥수수	639.75	+0.95	-1.46	USD/BRL	5.1974	-0.28	-0.04
밀	708.75	-0.56	-1.80	USD/CNH	6.8954	-0.37	-1.23
대두	1,518.75	+0.63	-0.03	USD/KRW	1,301.60	-1.06	+0.35
커피	177.85	-2.39	-5.25	USD/KRW NDF1M	1,294.17	-1.19	-1.5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52	-10.39	+0.85	스페인	3.661	-5.80	+15.40
한국	3.772	-6.20	+25.20	포르투갈	3.575	-4.90	+15.70
일본	0.506	+0.10	+0.20	그리스	4.488	-5.00	+10.10
독일	2.715	-3.60	+17.80	이탈리아	4.530	-8.60	+9.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